

# 올해 쌀

## 증산시책 이렇게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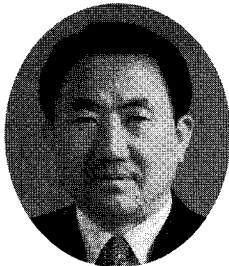
벼 재배계획 면적 우량논 중심 최대한 확보  
종합방제대상 병해충·잡초선정 집중 관리할 터

### '98 쌀 종합대책 추진성과

지난해에는 추곡수매가격 5.5% 인상과 쌀값 계절진폭 15% 허용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쌀생산 의욕이 그 어느해 보다도 높았던 의미있는 한해였다.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 양질다수성 품종을 97년 34품종 60만1천ha(57%)에서 98년에는 38품종 70만ha(전면적의 66%)로 확대하였다. 단보당 수량도 4백82kg으로 목표대비 12kg을 증수하였고 경지정리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자로 쌀 생산기반이 확충되었다.

또한 예년보다 발생이 많았던 병해충 적기방제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태풍「애니」내습 등 잦은 기상재해로 인해 그 어느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행정·지도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영농과 함께 쓰러진 벼 일으켜세우기 및 조기수확을 위해 범국민적인 농촌일손 지원으로 쌀생산량은 생산목표와 평년작을 웃도는 3천5백만석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혜상  
농림부 농산정책과장

**'99 쌀 생산대책**

**벼 재배면적 1백4만3천ha 확보**

벼 재배 계획면적 1백4만3천ha를 우량농 중심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휴경농 생산화, 간척지 벼 재배확대,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의 벼 재배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휴경농 2천ha에 대한 신규 생산화와 기존에 생산화 하였던 2만ha에 대해 농지소유자 또는 영농대행자로 하여금 벼를 심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농협에서는 휴경농 경작자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간척지 3만1천ha에 대해서는 간척사업지구중 내부개답 공사지구를 포함하여 벼재배가 가능한 곳에 용수확보 및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최대한 벼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량농 잠식억제를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억제를 통한 논잠식 최소화와 밭에 타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시설설치)시에는정책자금 차등지원과 시설채소 등 특수작물을 논에 재배한 경우에도 수확 후 벼 재배를 권장할 계획이다.

**지역에 알맞는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단보당 5백kg 이상 생산될 수 있는 양질다수성 품종벼의 재배면적을 지난해 70만ha(66%)에서 72만8천ha(전체 재배면적 70%)로 확대하기 위해 '98.12.23~'99.1.15일까지 농가별로 재배희망 품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보급종 1만3천1백53톤중 양질다수성 20품종 7천9백1톤은 지난해 수해·도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이형주, 잡초발생이 많았던 농가에 최우선 공

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해 영농설계교육시에 양질다수성 품종의 홍보 및 재배방법 지도와 우수 선도농가의 사례발표를 통해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4월까지 시·군·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에 양질다수성품종 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정부 보급종 신청, 보급 및 양질다수성 품종 농가 자율교환을 알선하며 추경벼 등 생산성이 낮은 품종은 양질다수성 품종으로 대체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적정 포기수 확보 및 적기 모내기**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서는 지대별, 모작별 적정 포기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야지는 평당 75주 이상, 남부 2모작지대는 85주 이상, 산간지는 100주이상 심도록 이앙기 보유 농가에 대해서 지대별 적정 포기수를 확보하여 이앙작업을 하도록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작업을 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전업농을 대상으로 위탁영농 계약시 반드시 적정 포기수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충분한 양의 모를 길러 모부족에 사전 대비토록 상자육묘 10% 더하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적기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 운동 전개**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을 경우 감수율이 연간 1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수율이 높거나 지난해에 많이 발생한 병해충과 잡초를 대상으로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과 잡초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새 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사전에 병해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벼물바구미, 도열병 및 벼멸구 약제는 농협 중앙회에 별도로 충분한량을 비축토록 하며 농약제조업체의 정상적인 농약 생산을 위해 농협이 주도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을 경우 감수율이 1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잡초를 선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을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벼멸구 및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병해충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병해충 기본 동시방제 모형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인 방제를 실천토록 하였다. 또한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항공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들밭 병해충 및 취약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방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시에 긴급 투입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피 등 잡초 방제로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 제초제 체계처리법을 단순화하여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중기제초제를 피 6엽까지 연장하여 살포하는 기술 지도와 도량, 논두렁, 수로 등 사각지대와 건답 직파필지의 잡초발생 대책추진 등 다각적인 잡초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이상기후 대비 영농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조치해야 할 단계별 사항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배수개선 시설 조기 설치 및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추진과 내 재해성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토양개량제 살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공급주기를 6년 1주기에서 5년 1주기로 단축하여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퇴비 생산 및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의한 유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지난해 4천ha에서 금년에는 1만4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연중 가동 하고 있으며 태풍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상상황 발생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쌀생산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종자·비료·농기계 등 각종 영농자재 공급 등 쌀생산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하여 금년도 쌀생산 목표인 3천5백만석을 기필코 달성코자 한다. 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농약정보**